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봄, 꿈을 꾸는 화가. **'노정희'** 작가

당신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가 노정희라고 합니다.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 자신에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미술 시간에 하는 그런 정도도 너무나 좋고 미술 시간이 미치게 기다려지고 그림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 열정 그런게 있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보다는 나는 꼭 계속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열망 그런것 때문에 가게 된 거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 같고 제가 크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제 열망이나 욕심만큼은 다다르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제가 그것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또 작가로서

작품의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주제를 미리 정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시기의 저의 관점이 있잖아요. 제 감성과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작품의 세계,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부제가 거기서 또다시 탄생하는 것 같아요. 쭉 이어지는 '봄, 꿈'이라는 주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거든요. 계속해서 통하는 그런 맥이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는 부제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화풍으로 변하게 된 계기는?

제 내적으로는 좀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다른 유명한 좋은 작가들,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 작품, 화집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시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쭉 그런 어느 시점까지는 이어져 왔는데 내 내면세계를, 정신세계를 좀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지만 작품에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심하던 시기쯤 김현희라는 조각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명장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런데 그분의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에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색채라던가, 면 구성이라던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제가 충격을 받고 왔는데 제 나름대로 그것을 같이 조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작품들이 초창기에 그렸던 작품들이 있는데 그렇게 계기가 되어서 조각보를 상당히 많이 그 이미지를 제 작품에 같이 조합하고 그 시도가 거기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만족감이 왔어요. 그리고 물감도 바꿔졌어요.
이전에 유화물감을 썼지만 아크릴 물감으로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색채도 대부분 원색을 쓰는데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잘 썼을때는 굉장히 강한 울림을 줄 수 있는 저에게도 그런 울림을 받을 수 있고 치유나 위로나 만족이라던가 그런 감성에 충족감도 올 수 있지만 관람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전달력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내 자신에 우선 만족스러운 소재와 작품세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변화의 큰 시점이.

작품의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산란하게 하지 않는거.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많이 만난다거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람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저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작업실에 사람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솔직히 반갑지 않았었어요. 이제 제가 안정되고 나서 작품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게 된 게 여기가 그림 그리는 작업실 공간이야 그걸 모를 정도로 거의 한 여기 이렇게 소통한지는 열리고 사람들 소통 한지는 2~3년 됐나요? 그 이전에는 여기를 공개하지도 않고 집중하기 위한 오로지 그런 유지 그리고 이 안에서 음악도 듣고 주변 환경에서 몰입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톨릭 신자이기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명상이라는 것도 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쓸데없는 것들 다 털어내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요. 비워내고 다시 이제 끌어들이고 또 다시 끌어내고 그런 것을 까다롭다거나 고집스럽다거나 뭐 도도하다던가 그런식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제가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생을 여기다 완전히 정말 제 욕심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치면서 이끌어왔는데 가족들도 고생시키고 다른 욕심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그래도 다 제쳐 내고 오로지 그냥 그림을 향해서 그림을 바라보고 그림을 위해서 다 왔는데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앞으로의 계획은?

당연히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겠고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작품세계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구축이 됐지만 여기서 이대로 끝은 아니잖아요. 꾸준히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변화들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동안에 시도했던 작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더 기법들을 가지고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기법들은 다를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더욱 깊이 있게 계속 몇 가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어느 정도 나의 시점이 됐을 때 그동안에 했던 작품들이 있잖아요. 쭉 세월 동안에 쌓였던 여러가지 제가 시도했던 작품들. 하다못해 스케치에서부터 인물화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물 모델을 쓰지 못하니까. 인물화를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그런데 인물화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때그때 제가 스케치했던 어린아이들 스케치부터 예를 들면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유화했던 그런 시기부터 지금. 어느 그 나이 때 시점까지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크게 어느 공간에서 흐름을 가지고 전시를 한번. 정리를 할겸 했으면 좋겠고 이건 꿈이에요.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완주에서 예술가로 산다는건?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건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조금 시내에서 보다는 번잡한 시내에서 벗어나 답답한 곳에서 벗어난 그런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마음 편하고 자유롭기는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도 외로움은 있네요. 나름대로 지금 제가 현재 완주지역에 소속되어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관심도 더 가져주시는 것 같고 저에게는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외롭지만 자유롭다. 그러나 약간의 부족함도 느낀다.